

국제 미술축제 걸맞게 광주와 세계 교감 차별화된 전시를

광주비엔날레 달라져야한다 <상>

관객없는 행사 부끄러워 조직 일원화·역량강화 시급

지난 1994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다. 광주일보는 <광주비엔날레 달라져야 한다>를 주제로 전시 구현, 감독 선정, 조직 구성 등 비엔날레 방향성에 대한 제언의 기사를 2차례에 걸쳐 실는다.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14회에 걸친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 명성을 가진 세계 비엔날레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광주비

엔날레는 감독 선정, 조직 문제, 프로그램 등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개'라는 주제로 31개국 43도시 79작가의 340여 작품을 선보였지만 임팩트 있는 작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미술계 안팎의 지적이다. 코로나 이후 가장 기간의 국제적인 미술 행사임에도 이슈를 비롯해 담론, 전시 구성 등에 있어 무색무취의 비엔날레였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요인으로 문화계 A씨는 "비엔날레는 검증되지 않는 전시이다 보니 진정한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비엔날레 입장에서는 관객이 얼마 왔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세계적인 작가, 미술가들이 얼마나 광주비엔날레에 관심을 쏟았느냐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미술계 B씨는 전시 주제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했다. 광주비엔날레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세계와 교감할 수 있는 주제를 전시하고,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키워드는 '여성'과 '흑인'이었고 감독도 여성이었다. 초현실적인 현실에 대한 부조리적인 상황을 성찰하는 '꿈의 우유'가 주제였다"며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개'라는 전시 주제가 얼핏 베니스비엔날레와 유사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부산비엔날레의 '물결 위 우리'라는 주제와 비교해도 광주비엔날레의 주제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물론 트렌드라는 게 있지만 그 트렌드와 변별이 되는 광주비엔날레만의 차별화된 전시를 구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 구현이 친환경적으로 진행된 점은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도 많았다. 반면 전시 구현이나 배치가 단조롭고 미미한 점은 향후 광주비엔날레가 고민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화계 C씨는 감독 선정에 있어 특정 문화권이나 특정 지역 전문가보다 국제적인 시야와 지명도가 있는 미술계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아울러 그는 "비엔날레 전시는 개인의 취향이나 안목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재단은 비엔날레가 동시성을 보여주면서도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감독 선임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태생적으로 조직의 일원화 문제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비엔날레를 비롯해 국제

적인 문화행사를 치르기 위해선 인적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최근 몇 년 간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비엔날레 구성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조직을 떠나는 상황이 되풀이됐던게 사실이다.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물론 문제 발생 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계에서는 "지금까지 광주비엔날레는 유수의 유타파들이 왔지만 지방의 한계로 인해 메뚜기처럼 머물다 떠나는 현상이 자주 반복됐다"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지역 출신 인재들이 비엔날레에 남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재단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동훈<맨 왼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목포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영양=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 기여할 제도 만들겠다"

한동훈 장관, 현대삼호중공업 방문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조선업 현황을 찾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이날 목포 현대삼호중공업 방문해 "대한민국 과거이자 현재, 미래인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법무부 모두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인력 문제"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와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인력 문제를 장기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현대삼호중공업 내 LNG 운반선에 직접 올라타 액화 가스를 보존하기 위한 멤브레인 시트, 시트 자동 용접 시연 등을 지켜봤다.

시찰 이후에는 협력사 대표, 외국인 근로자 등을 잇달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수렴했다.

한 장관은 11일 전남도정을 찾아 김영록 지사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양=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청산도 구들장·담양 대나무밭 이어 세번째...어업 분야 전국 최초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 '거랭이'라는 도구로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잡아온 광양-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사진)이 우리나라 어업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전남도는 10일 "지난 4·7일 열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 '담양 대나무밭 농업'에 이은 세 번째다.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광양과 경남 하동 섬진강 하류 일대에서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섬진강 유역 주민의 오랜 생계 수단이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 지정 제7호 국가중

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2020년 1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을 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이날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등재가 결정됐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업유산이 식량 및 생태안전에 기여, 생물다양성, 전통적 지식체계, 문화·가치체계로서 전통 어업문화와의 연계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제주 발달 농업 ▲완도 청산도 구들장은 ▲하동 전통 차농업 ▲금산 인삼농업 ▲담양 대나무밭 농업 등 총 5개의 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하 고

고 송원 고제철 학교법인 송원대학교(송원대학교, 광주송원유치원), 학교법인 송원학원(송원고등학교, 송원여자고등학교,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광주송원중학교, 광주송원초등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님께서 2023년 7월 9일 06시 30분에 향년 95세(만 93세)로 별세 하셨습니다.

분향소: 송원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영결식: 2023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가족묘원

妻	김규리	子	김은주
女	정주	孫	이성민
外孫	정주	孫女	정대훈
정용석	윤호	外孫女	박석인
윤호	윤준	정유민(남편 이동한)	노호수
노용호	정문	정유민(남편 이동한)	박지수
박영구	명덕	정유민(남편 이동한)	박가영
정용석	현덕	정유민(남편 이동한)	박가영
윤호	명문	정유민(남편 이동한)	박가영
노용호	명문	정유민(남편 이동한)	박가영
박영구	명문	정유민(남편 이동한)	박가영

공 고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학교법인 송원학원 설립자 이신 송원 고제철 이사장님께서 2023년 7월 9일 06시 30분에 향년 95세(만 93세)로 별세 하셨습니다. 영결식을 학원장으로 거행함을 삼가 알립니다.

영결식
일시: 2023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송원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장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가족묘원

장례위원장: 최수택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송원여자고등학교	주신회사 대야건설
송원대학교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대야에너지주신회사
광주송원유치원	광주송원초등학교	대야에너지주신회사
광주송원중학교	광주송원초등학교	오농저판티크팩토리
송원대학교	송원대학교	광주과영개발주신회사(박영우)
송원대학교	송원대학교	에디트(박영우)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향일시: 2023년 7월 10일(월) < 11일(화) > 오전 9시부터 > 오후 9시까지입니다.